

(주소) 1707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전화) 031-270-8601 (팩스) 031-283-5364

배 포 일	2025.7.17.(목)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5.7.18.(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반기 초등단체 상설교육 프로그램 성료		2	2	<a href="http://gcm.ggcf.kr">gcm.ggcf.kr</a>	부서 : 학예운영실 담당 : 김수성 전화 : 031-270-8634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상반기 초등단체 상설교육 프로그램 성료

### ▶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3차례 운영, 314명 참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이지희)은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운영한 초등단체 상설교육 프로그램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3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314명의 경기도 내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적 감수성, 공동체 속 다양성과 소통을 주제로 환경을 위시한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저학년(1~4학년)과 고학년(5~6학년)을 나눠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되었으며, 특히 박물관 3층 상설 전시실과 연계하여 이론과 체험, 표현 활동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입 활동에서는 저학년 참여 학생들에게 암호화된 편지와 암호가 숨겨진 비밀지도, 전시관 내에 숨겨진 글자 조각 찾기 미션이 주어졌으며, 조별로 미션을 해결하며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해독한 후, 메시지 안에 담긴 생태계 위기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가상의 환경 조사원이 되어 숨겨진 사진을 찾아보고, 찾은 사진에 보이는 문제들의 원인을 예측하는 보고서 미션이 주어졌다.

전시실 체험 이후에는 생태계 실태 보고서 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활동, 마인드맵 기반의 창작 활동(DNA 활동지) 등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해양 생태계의 플라스틱 문제, 멸종위기 동물, 전쟁과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환경 이슈를 접하고, 자기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또 다른 나 되어보기’에서는 아이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한 상상 속 생명체로 변신해 그려보고 발표하는 창작 발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름에 대한 이해,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서로 공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재미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 긍정적인 참여소감을 들려주었다.

교육을 기획한 김수성 학예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어린이들이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생명종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사회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진>



※ 사진제공 : 경기도어린이박물관